

의 학도로서

가져야할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테마스쿨

1st Edition

목차

이 세계에서 의대생이 눈을 뜨니 바리스타

김재원

How+we+die

박혜리

생활 속의 방사선 인터뷰

신대희

의사와 미디어

정철환

이 세계에서 의대생이 눈을 뜨니 바리스타

김재원

여기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적이다 못해 팍팍하기 까지 한 의대생활을 학생들은 오늘도 겨우겨우 버텨낸다. 겨우 학교에 오더라도 피곤에 절어 수업시간에 눈을 뜬건지 안뜬건지 구분이 안가는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커피다. 의과대학 학생들 커피로 하루를 겨우 버틴 이들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에겐 각성제 역할 일 것 이고 누구에겐 식후 입가심 일 수도 있지만 커피를 통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노운석 교수님과 윤희준, 박여진, 이원욱, 김대욱 학생이 함께 하는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이 그러하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취재를 위해 <커피명가 라핀카>에 다녀왔다.

일반 커피가게와는 다르게 방문한 <커피명가 라핀카>는 커피가게 옆에 작은 커피 농장과 원두 보관 창고, 그리고 바로 로스팅 할 수 있는 기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운 좋게도 농장과 창고, 로스팅 기계를 모두 견학 할 수 있었다. <커피명가 라핀카>에서 취급하는 원두의 원산지는 대표적으로 과테말라, 브라질, 파프아뉴기니 정도가 있었다. 과테말라에서 온 원두는 세계적인 원두 대회 COE(Cup Of Excellence)에서 7번이나 1위를 한 농장과 독점계약을 통해 농장에서 바로 온것이라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원두가 온도에 민감하여 상시 시원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하는데 여름에는 큰 창고 전체에 에어컨을 24시간 동안 틀어놓는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은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파는 커피의 맛에 익숙한데, 진정한 커피는 핸드드립을 통해 만들어진 커피라고 견학 시켜주신 선생님과 노운석 교수님이 입을 모아 말씀 하셨다. 로스팅을 통해서 커피에서 나올수 있는 모든 향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비롯한 학생들 전원이 황홀한 냄새를 상상하며 기대를 숨길 수 없는 상태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핸드드립 커피가 좋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마셔본 사람은 윤희준 학생 외에는 거의 없었으니 더 기대가 컸을 것이다. 커피 견학 선생님이 “자 이곳이 바로..”라고 말하며 채 말이 끝나기도 전 우리 모두는 로스팅 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에 도취되어 ‘쿵카쿵카’ ‘아..’ 등의 감탄사 밖에 낼 수 없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하고 또 약간은 씹쓸한 특유의 커피 향이 몇배는 증폭되어 건물 가득히 퍼져있었다. 로스팅된 원두의 향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것인지 윤희준 학생이 질문을 했다. “집에서 프라이팬으로도 로스팅 할 수 있을까요?” 견학 선생님이 “고르게 익기 힘들고 걸만 타버려서 이런 향기는 나지 않을 꺼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상은 했지만 아쉽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그만큼 향기가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커피명가 라핀카> 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기계들도 있었다. 바로 브라질에 단 두 대 밖에 없다는 생두 선별기를 비롯해 한국 최초의 로스팅 기계까지 커피 역사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기계들이 있었다. 속으로 ‘이렇게 귀하신 물건들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냈다. 로스팅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로스팅은 법칙이 없다고 하시며 평균적으로 8, 9분 정도 하지만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썬 불에서 하느냐 약한 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맛또한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하시며 자기에게 맞는

로스팅 법을 찾아가는 과정또한 커피를 마시는 것의 매력중 하나라고 하셨다. 이때, 김대욱 학생이 “힘들어서 그냥 사먹을지도..” 라고 던진 혼잣말에 모두 웃으며 견학이 끝났다.

견학을 마치고 바로 로스팅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진하고 고소한 올굿, 새콤달콤한 폰 달라잇, 신맛이 없는 스윗 클래식, 풍부한 조화 부에나 비스타, 이렇게 4가지 로스팅 기법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커피들을 맛 보았다. 우선 공통적으로 평소 커피가게에서 사 먹던 커피와는 맛이 매우 다름을 모두가 인정하였다. 이때까지 마셔왔던 커피에 익숙해진 나머지 텃고 쓰고 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지만 확실히 향 만큼은 압도적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싸늘했던 날씨가 조금은 포근해져서 였을까, 좋은 커피 향을 느끼며 도란도란 얘기를 해서일까, 평소 의과대학 생활에 지쳐있던 학생들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겠지만 커피를 마시며 봄 기운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늘 하던 학교얘기, 시험 얘기도 아닌 커피 얘기를 하며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잠을 깨기 위해 마셨던 커피, 밥 먹고 입가심용으로 마시던 커피가 일상에 더 충실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였다면 이 커피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숨을 돌리고 다시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커피였다. 일상에 너무 치이고 살아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일상에서 잠깐 빠져 나오는건 어떨까?



How we die, 죽음이란

박혜리 기자

듣기만 해도 두려움과 슬픔이 앞서는 죽음이라는 단어. 하지만 앞으로 의사들에게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다. 이러한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보았다. 바로 설기호 교수님과 김준원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세세젤빅' 조로, 강병조, 남소영, 류정환, 박수아 이렇게 네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How we die'라는 주제를 갖고, 암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4월 2일, 이들의 활동에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KBS스페셜 앵, 두엄마>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암환자와 가족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회원이 주인공이었다. 각각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4기인 두 명의 엄마가 병이 진행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삶을 그려내는 내용이었다.



눈물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



진지하게 동영상 시청 중인 모습이다.

다음은 다큐멘터리 시청 후 이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교수님: 엄마는 대단하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고.

학생1: 본인이 편안해해서 마음은 좋았어요.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학생2: 가족들의 지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영상에 나온 사람이 더 오래 살아서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빨리 계속 나빠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3: 엄마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사회에서 그걸 당연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사회가 별로여서 바뀌면 좋겠어요.

교수님: 남편이나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할까. 난 그냥 안아줄 것 같아.

학생4: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간식이를 받으셨는데,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약하고 그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수업시간이면 4A기, 완화치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 colon cancer는 오래 살긴 하나 결국 간에 전이가 오고 복수가 차서 숨쉬기 힘들어지고, conservative하면 1년 좀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치료는 supportive care이고 현재 효과 있는 항암제는 없다. 이려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지. 필드에 나와서는 다양한 삶, 경험, 사상, 환경이 담겨있어. 진료 시간에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지.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도와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야. 사회에 복귀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적응할 수 있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환자들은 알고 있거든. 냉정한 현실직시와 한 발짝 떨어져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해.

하루의 방문 후 필자는 교수님들의 멘트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았다. 의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구가 떠올랐다. 밀려오는 시험에 마구잡이로 머리에 집어넣는 지식은 전부가 아니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환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이라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김준원 교수님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

생활속의 방사선

신대희 기자

방사선이란 과연 무엇일까? 퀴리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라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자칫 잘못 다루다간 수세기 동안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질이다. 그런데 이런 방사선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도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에 대해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 과연 사람들이 가지는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큰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우일 뿐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루가관 5층 회의실에 최병욱 교수님을 비롯한 권영기, 김도경, 배기훈, 백상현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수업 첫 번째 순서는 배기훈 학생의 발표로 시작 되었다. 발표 주제는 ‘담배속의 방사선’이었고, 발표 내용 중 중요했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면, 하루 담배 1.5갑이면 연 300회의 X ray검사량 동등한 양의 방사선을 쬐는 것과 같고, 폴로늄의 세포와 DNA파괴 세기는 X 선의 20배나 된다. 또한 폴로늄이 담뱃잎에 농축되는 메커니즘은 인회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인공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암석에는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극미량의 방사성 라듐이 존재하고 라듐이 붕괴하면서 이차적으로 방사성 폴로늄이 만들어 진다. 그 이유로

담배 내에 방사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인도산 담뱃잎에는 폴로늄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수업은 최병욱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자료로 진행되었는데, 방사선 피폭 (대진침대)으로 인한 침대 리콜 관련 토론 영상이었다. 영상 내에 다양한 쟁점들이 나왔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면,

1. 피폭 매트리스에서 인체에 해로운가? 모유수유에는 영향이 없다, 금방 붕괴되고 중금속량도 미미하기에 임상증상이 없는 한 큰 문제는 없다.
2. 빗물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3. 향후 리콜된 침대의 처리는? 처리방안 확정, 안전성 검토 및 폐기 처분 한다.
4. 작업자는 안전한가? X 선 촬영(0.1mSv)시 받는 방사능의 200분의 1 수준을 받는다. 외국에서는 0.1mSv보다 적다(0.04mSv)고 보기도 한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 피피티를 통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오해를 알려주셨다. 그 중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면, '도쿄를 비롯한 일본 북부 지역은 이미 방사능 오염이 심하고 점점 확산될 것이다'라는 오해는 음식물 카테고리 방사능 피폭량을 조사해 본 결과, 버섯류와 생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은 자연 피폭량을 크게 넘지 않았다. 또한 후쿠시마에서부터 피폭되어 나온 방사능의 양을 표시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합성해서 만든 가짜 지도였다.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너무 믿지 말자였다.

오늘 모임을 진행하기 전까진 나 또한 방사선에 대해 지나친 걱정과 허위로 떠도는 정보들로 인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곤 했는데, 이번 모임을 통해 내가 방사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부분과 오해하고 있던 정보를 다시 알게 되었고, 잘못되고 신뢰성 없는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고민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사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진 말되,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의사와 미디어’ 조

정철환 기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친구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소통한다. 글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본다. 각 가정마다 TV를 두고 아침에 뉴스를 보는 것은 이미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쏟아지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따라 우리는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미디어에 둘러 싸인 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란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뉴 미디어의 등장과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사회 전체를 통괄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앞으로 살아갈 의사로서의 삶에서도 미디어의 중요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디어에는 많은 의료지식이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의료지식을 얻는다. 의료지식의 정확한 전달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에 오히려 의사는 더 미디어에 예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디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의료인문 테마 스쿨 주제 중 의사와 미디어라는 주제의 조가 있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취재를 하게 되었다.



‘의사와 미디어’조는 김소원, 김승은, 배동진, 이상민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 고석봉 교수님이 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신다. 이 조에서는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고 조원들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가장 먼저 '의사와 미디어'조에서 한 활동은 신문사 방문이다. '의사와 미디어'조는 대구 매일신문사를 방문하여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신문박물관을 견학하여 매일신문사의 역사와 신문의 발달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식사를 하며 신문사 견학에 대해 느낀 점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문사에서 의료 기사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큰 신문사는 의사 출신의 의료 전문 기자가 의료 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 출신 기자가 없는 신문사의 경우 주위 경험이나 다른 기사를 참고해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얻어 기사를 쓰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내용이라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 다시 연락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낸다고 한다. 이렇게 '의사와 미디어'조는 신문사 방문을 통해 신문이라는 미디어에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후 고석봉 교수님과 '의사와 미디어'조는 카페에 모여앉아 견학 후 소감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터넷에는 수많은 의료지식이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거친 정확한 정보들도 있으나 개인이 부정확한 지식을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많아 정보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 조금이나 알 수 있었으며 신문사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신문

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꼭 의사가 되지 않고 의과대학을 다니며 익힌 지식을 통해 의료 전문 기자나 의료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의 꿈을 이루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